

대림산업, 말레이 화력발전소 수주

TNB, 1000MW 석탄화력·1조3000억원 발주 ... 2017년완공 예정

대림산업이 말레이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나선다.

대림산업(대표 김윤)은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청(TNB)이 발주한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8월22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약 1조3000억원(약 11억5300만달러)으로, 발전소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서쪽으로 약 288km 떨어진 말레이시아 만중 지역에 건설하며 2014년 1월2일 착공해 2017년 10월1일 완공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TNB는 말레이시아 전체 전력공급의 55%를 담당하는 국영 전력기업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으며, 대림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소 발주가 기대되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림산업은 1974년 처음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 철수했으나 13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대림산업은 2012년 12억달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주했고,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총 20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발전플랜트 공사 4건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22>